

짜보선창 · 신영시장 활력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마중물 역할

군산시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중심시가지역)이 짜보선창과 신영시장 일대의 옛 활력을 되찾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동(금암동 신영동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주민공동체 짜보선창변영회는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짜보선창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지난해 전북 최초 도시재생형 예비 마을기업에 이어 올해 전북 최초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됐



으며 이는 군산에서 5년 만에 이뤄진 6번째 마을기업이다.

협동조합의 주력상품인 '짜보선창 합매떡이박'은 수제떡주 체험판매장인 군산비어포트에서 수제떡주양조과정 중 발생하는 맥아박(맥아부산물)을 이용한 부드러운 구수하며 영양가가 높아 남녀노소가 즐길 수 있는 강

정형태의 간식으로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로컬푸드나 상점에 입점할 수 있게 되었다.

권남균 협동조합 대표는 "짜보선창 주민들의 공동체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인 경제활동으로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곤 문화관광국장은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첫 마을기업으로 의미가 있으며 또한 전북 최초 도시재생형 마을기업이란 타이틀까지 가질 수 있어 자랑스럽다"며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고생한 조합원들과 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품목 개발 및 작업방식 개선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코로나 재확산 대비 예방방역 체계 강화

접종기관 60개소 확대... 4차 백신접종 독려

익산시는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2배씩 오르는 '더블링' 현상에 따라 코로나19 예방 방역 체계를 강화한다.

익산시보건소는 코로나 재확산에 대비해 예방접종 기관 확대, 찾아가는 백신접종 운영 등 4차 백신접종 독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접종 대상자는 기존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했다. 기존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 노숙인·장애인 생활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입원·입소자를 추가했다.

보건소는 우선 접종대상자의 접근 편의성 향상을 위해 모더나 접종기관을 기존 7개소에서 60개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확대된 접종 대상자들은 원활히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기저질환자는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 소견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접종 기관에서 문진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4차접종은 3차 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으며 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 백신 중 원하는 백신으로 접종할 수 있

다.

한편 보건소는 감염 취약시설인 노숙인·장애인 생활시설 등 12개소의 입원·입소·종사자 328명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거동이 불편한 접종 대상자들을 위해 접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4개 방문접종팀을 구성해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방문 접종을 완료했다.

익산시보건소 관계자는 "백신 접종 후 4개월 이상 지났을 경우 백신효과가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접종자들의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염 재확산에 대비해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공공 보육 인프라 거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구밀집도가 높은 서부 권역에 임신·출산·육아 통합 거점을 두고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부권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준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29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김수홍 국회의원, 시의원, 관련 부서장 운영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을 진행하는 원광보건대학교(산학협력단)의 마지순 책임연구원이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결과와 입지분석, 설치방법 등을 발표하고, 익산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구축방향, 운영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시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의

방향을 설정하고, 문제점 등을 진단하여 설치계획을 수립 후 명품이동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갖춰나갈 방침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서부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익산형 공공보육 인프라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수요층의 니즈를 확실하게 반영할 수 있게 시민 의견수렴에 집중해 달라"며 "영유아와 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시설을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가 악취 민원이 집중하는 8월 악취관리를 위해 강력한 사업장 단속을 시행한다.

'시민과 악취측정차 탑승데이'

익산시, 8월 폭염기 악취 집중행정 추진

익산시가 악취 민원이 집중하는 8월 악취관리를 위해 강력한 사업장 단속을 시행한다.

시는 8월부터 악취 발생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악취 배출 사업장 집중단속과 함께 악취 시료포집 비율을 90% 야간에 집중 추진하는 야간 악취단속 행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악취발생 사업장 중 야간조업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부적정 가동 및 악취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 뿐만 아니라, 24시간 악취 집중감시를 각인시켜 심야시간대 악취방지시설 미가동 운영사례를 근절 시키기 위함이다.

또한 전북 최초로 도입된 스마트 악취측정 차량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악취측정차 탑승데이'를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악취측정 차량의 포집부터 분석 과정을 공개하고 악취 발원지를 역추적하는 과학적인 악취 단속 체험 기회를 시민에게 제공해 악취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많이 저감된 악취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8월 악취 집중단속을 추진한다"며 "시민 참여형 악취 행정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걸맞은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 인프라 확대

익산시는 지난 29일 북부권 농촌지역 주민 대상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하기 위해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운영을 시작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최종오 익산시의회 의장, 김수홍 국회의원, 김정수 도의원, 지역정치인, 지역주민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 재확산 방지차원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진행됐다.

함열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총 21억 원을 투입해 기존 부지 내에 지상2층, 전체 면적 986.57㎡ 규모로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리모델링과 증축해 지어졌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는 진료 기능 중심의 보건지소에서 예방·건강관리 등 예방중심 의료서비스로 확대해 고령화된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 관리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다.

이에 따라 기본 진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북부권(용안, 용동, 남산, 성당, 함열, 함다) 지역 주민들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의료시설을 집중 확대했다.

특히 기존의 의과, 한방과 진료실 외에 건강증진실·건강관리실·치매안심센터·건강키움방 등을 새롭게 갖춰 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의료 접근성 뿐만 아니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증진 시설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2022 군산 짬뽕페스티벌' 개최

군산시는 동명길 일원(장미동)에 위치한 짬뽕특화거리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2022 군산짬뽕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축제가 취소됐지만 올해 대면축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전문 축제진행 운영업체 선정 진행 중이다.

관람객이 모이는 공연, 체험, 마켓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할 계획이며, 그동안 치러졌던 비대면 축제의 아쉬움을 달래고 군산 짬뽕특화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축제기간 동안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홍보와 포토존 구성 다양한 체험 등으로 진행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유의해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교통질서 확립 불법 주·정차 단속

익산시는 어린이 교통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정차 단속체계를 변경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가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거주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승하차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오전 8시 ~ 9시에는 10분, 오전9시 ~ 오후7시까지는 20분까지 단속유예 할 방침이다.

다만 기존 일반 도로에서 실시한 점심시간(정오~오후 2시)과 일일주차 50분 유예단속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전망이다.

익산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구하고자 8월 말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다소 불편함이 있었지만 올바른 주정차 문화 조성과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